

영암민속씨름단 김기태 감독

“역칠기삼’ 씨름의 매력 알려 대중화 이끈다”

2023년 설날장사 씨름대회 3체급 석권·총 19번의 우승 등 기록 달성 ‘씨름괴물’ 김민재·‘차세대 스타’ 차민수 등 멤버로 단체전 우승 노력

70%의 힘과 30%의 기술로 승부가 나는 ‘역칠기삼’의 스포츠, 씨름. 이보다 신년에 걸맞은 민속 놀이 문화가 있을까 싶다.

“2024 설날장사 씨름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 오면서 영암군민속씨름단이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암씨름단은 영암에서 열린 ‘2023 설날장사 씨름대회’ 3체급 석권을 비롯해, 지난해 총 19번의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했다. 영암씨름단의 김기태 감독은 그가 이끄는 12명의 선수와 함께 올해 더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나선다.

15년간 프로 선수 생활을 하며 한라장사 10회 및 올스타, 백호장사에 등극하며 활약했던 김 감독은 은퇴 후 2017년부터 영암씨름단의 지휘봉을 잡았다. 그는 씨름단의 우수한 성적을 만들어내며 우리 고유문화유산 씨름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

김 감독은 ‘빠르게 나는 승부’와 ‘살바싸움’을 씨름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는다.

김 감독은 “씨름은 살바라는 도구를 잡고 상대와 붙어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이기거나 지기 전까지는 도망갈 수가 없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승자가 될 수가 없다. 무조건 공격해야 이기는 승부라는 스포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된 우리 전통 문화유산 씨름을 이어간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냈다.

김 감독은 “전통 문화유산 씨름을 정말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싶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영암군 씨름단이었던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천하제일장사’ 등 각종 예능 및 유튜브 영상에 출연하며 씨름문화의 대중성을 높이는 데도 일조했다. 그가 이끄는 영암씨름단은 지난 시즌 천하장사 씨름대축제남자일반부 최강단체전 포함 3개의 단체전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단체전 우승을 합작한 선수들은 16차례 개인전 우승도 차지하는 등 영암씨름단은 최강 멤버들로 구성됐다.

‘씨름괴물’ 백두금 김민재는 지난해 10번의 시합에서 7번의 우승을 거뒀다. 김민재에 대해 김 감독은 “대한민국의 보물이다. 앞으로 어떤 기록을 세워나갈지 나도 심장이 떨 정도다. 부상 당하지 않고 우리 맞춰진 스키점프와 또 동료들과 같이 훈련에 임해준다면 분명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떠오르는 차세대 스타 한라급 차민수도 있다. 차민수는 지난해 3관왕이라는 금자탑을 쌓기도 했다. 베테랑인 한라급 최성환, 금강급 최정만도 팀을 든직하게 지키고 있다. 영암씨름단은 2023년의 좋은 성적을 이어 올해도 그들의 실력을 당당히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중요한 ‘설날장사대회’를 한 달여 앞둔 만큼, 영암씨



김기태 감독



영암민속씨름단 선수들이 9일 영암 삼호읍 농어촌종합체육관에서 맹훈련을 펼치고 있다.

〈영암민속씨름단 제공〉

름단은 ‘체력’, ‘부상관리’와 함께 동계훈련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김 감독은 “선수들의 체력과 부상관리에 대한 것들을 매일 머릿속에 담고 살고 있다”며 “선수들에게 인기 있는 감독이 되고 싶지는 않다.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이게 맡은 쉬운 것

같아도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 공부해 나가는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영암씨름단은 명절대회 3회(씨름, 단오, 추석), 민속리그 6회와 105회 전국체전, 천하장사대회 등 총 11회의 대회에 출전한다.

“2024 설날장사 씨름대회”는 태안종합 실내체육관에서 오는 2월 7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남녀 7개 체급 및 단체전 경기가 진행되며, 공중파(KBS 1TV)와 케이블 스포츠 채널(KBS N)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김시우, PGA 투어 소니오픈서 타이틀 방어 나서



지난해 이어 생애 첫 2연패 노력 감 좋은 안병훈 상승세도 주목 이경훈·김성현 새해 첫 출격

김시우(28·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첫 타이틀 방어에 도전한다. 김시우는 1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744야드)에서 열리는 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830만 달러)에 출전한다.

김시우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짜릿한 역전 우승으로 투어 통산 4승을 달성했다.

당시 최종 라운드에서 헤이든 버클리(미국)와 선두 경쟁을 벌이던 김시우는 마지막 후에서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1타 차로 끌려가는 17번 홀(파3)에선 그린을 놓쳤으나 칩인 버디에 성공해 공동 선두로 나섰고, 18번 홀(파5)에서는 티샷을 병커에 빠뜨리기도 버디를 잡아 우승을 차지했다.

전날 2024시즌 개막전을 공동 25위로 마친 김시우는 이 대회에서 기분 좋은 기억을 되살려내겠다는 각오다.

김시우는 2022-2023시즌 30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1차례, 준우승 1차례를 포함해 톱10에 5번 진입했다.

다만 마지막 톱10이 6월 메모리얼 토너먼트(4위)로 그 이후 출전한 9개 대회에서는 3차례 톱10에 진입하는 등 흐름이 썩 좋지 못했다.

김시우는 지난 시즌 드라이브 정확도(11위·67.80%)에서 강점을 보였고, 퍼팅 이득 타수(-0.308)는 163위에 그칠 정도로 그린 위에서 약점을 나타냈다.

김시우와 함께 우승을 노리는 한국 선수로는 안병훈, 이경훈, 김성현이 있다.

특히 안병훈은 2024시즌 개막전인 더 센트리에서 4위에 오르는 등 기세가 좋다.

PGA투어닷컴도 안병훈을 파워 랭킹 6위에 올려놓고는 “지난해 이 대회를 공동 12위로 마치고 커리어 통산 가장 좋은 시즌을 보냈다”고 평가했다. 김시우는 8위다.

2011년 프로 데뷔한 안병훈은 PGA 투어에서 181개 대회에 출전했으나 아직 우승이 없다. 준우승(4차례)이 개인 최고 성적이다.

2022-2023시즌에는 31개 대회에 출전해 윈덤 챔피언십 준우승을 포함해 톱10에 4차례 진입했다. 다만 기침약을 먹었다가 도핑 검사에 걸려 3개월 출전 정지를 받은 게 아쉬웠다.

개막전 우승자 크리스 커크(미국)는 2주 연속 우승 사냥에 나선다.

게리 우들랜드(미국)는 지난해 9월 뇌 병변 수술을 받고 5개월 만의 복귀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골프 황제’ 우즈, 27년 입은 나이키 옷 벗는다

나이키, 프로 데뷔부터 후원 골프 사업 철수 전망도 나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사진)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27년 넘게 이어 온 파트너 관계가 끝이 났다.

우즈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이키에 감사의 뜻을 포함해 동시에 후원 계약이 종료됐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우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브랜드와 함께해서 행복이었다”고 글을 올렸다.

우즈는 3년 연속 US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던 1996년 8월에 프로로 전향하면서 나이키와 후원 계약을 맺었다. 우즈가 프로로 전향하면서 했던 인사말 ‘헬로, 월드’는 화제가 됐고, 나이키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했다.

당시 우즈는 나이키와 5년간 4000만 달러(약 527억원)라는 엄청난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그의 아버지 고(故) 얼 우즈는 “푼돈이었다”라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 말처럼 이후 후원금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우즈는 5년 뒤인 2001년에 5년간 1억 달러, 2006년에는 8년간 1억6000만 달러의 후원 계약을 했다. 2013년에는 후원 계약 액수가 2억 달러까지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는 나이키 골프의 얼굴이 됐고, 자신의 브랜드 ‘TW’를 가졌다.

2009년 우즈의 ‘블루 스퀘드’와 부상이 겹쳐 경



기에 제대로 출전하지 못하고 이미지가 실추됐을 때도 나이키는 우즈를 지지했다.

하지만 나이키는 골프 사업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다. 2016년 골프 장비 사업에서 철수했고, 사실상 골프의 리류 부문만을 남겨 놓았다. 최근 사업 발표회에서는 앞으로 3년 동안 20억 달러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골프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우즈의 에이전트인 마크 스타인버그는 “우즈가 새로운 계약을 준비 중이며 흥미로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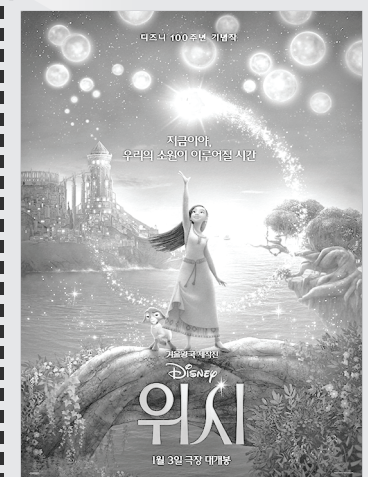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외계+인 2부
 - 2관 위시
 - 3관 서울의 봄
 - 4관 외계+인 2부
 - 5관 노랑: 죽음의 바다, 림세의 사계
 - 6관 위시, 노랑: 죽음의 바다, 길위에 김대중
 - 9관 노랑: 죽음의 바다, 스토메의 문단속: 다녀왔어, 신지원 쟁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 날아라 수제김밥-
- 7관 씨네마클립 림세의 사계, 스토메의 문단속: 다녀왔어, 아무어맨과 로스트 킹덤
- 8관 씨네마클립 스토메의 문단속: 다녀왔어, 인투 더 월드, 메이킹 더퀸터라 스토메의 문단속을 따라가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 COURT SIDE in Theaterz



광주시립교향악단 380회 정기연주회 2024 신년음악회 Festival
일시 : 2024-01-16(화) ~ 2024-01-17(수) 19:30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613-8241



GAC 공모전시 정승희 개인전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순간>
일시 : 2024-01-17(수) ~ 2024-02-18(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